



강이야기
 ● 5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신현배 | 시인/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형산강 용이 된 왕자와 형산강

형산강은 경상북도 경주를 지나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형산강 남쪽에는 형산이 있고 그 북쪽에는 제산이 있습니다. 형산강은 이 두 산 사이를 지나 경주에서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옛날에는 형산과 제산이 하나의 산으로 이루어진 ‘형제산’이었다고 합니다. 경주를 지나온 강물은 이 산이 가로막아 포항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큰 호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경주는 물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논과 밭은 물론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왕들이 형산강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

문입니다.

어느 해 여름, 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어김없이 온 마을이 물에 잠겨 버렸소. 해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홍수를 막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 물줄기를 바다로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가른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래도 홍수를 막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도 딱하구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방법이라고

제시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왕은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입을 다물고 있던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옥황상제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실 지도 모르지요. 제가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겠습니다.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 달라고 말입니다.”

왕의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래. 그게 좋겠다. 내일부터 네가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려무나. 우리도 여기서 기도할 테니.”

왕자는 왕의 승낙을 언차 다음 날 백률사라는 절로 들어가 백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옥황상제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홍수가 나지 않게, 형산강 물줄기가 빠져 나가도록 형제산을 두 동강으로 갈라 주십시오.”

왕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밤, 왕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성이 가륵하구나.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다. 옥황상제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네 기도를 다 들으셨다. 네 정성에 감동하시어 네 소원을 들어 주라고 하셨다.”

“그게 정말입니까? 오, 옥황상제님, 감사합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주문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음력 초아흐렛날 형제산 밑으로 가서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네 몸이 큰 구렁이로 변할 것이다. 구렁이가 되면 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드러누워라. 그때 사람들은 네 모습을 보고 ‘앗, 구렁이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날 것이다. 그런데 너를 보고 구렁이가 아니라 용이라고 불러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몸을 뒤척여 보아라. 그럼

네 몸이 용으로 변할 것이다. 용이 되면 하늘로 치솟아 형제산으로 날아가라. 그래서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치면 형제산이 두 동강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바라던 대로 형산강 물이 바다로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옥황상제의 사자는 왕자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자는 다시 바다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깨어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옥황상제께서 소원을 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음력 초아흐렛날까지 형제산 밑에서 기도를 드리자.’

왕자는 형제산 밑으로 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초아흐렛날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옥황상제의 사자가 일러 준 대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큰 구렁이로 변했습니다.

왕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가서 드러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앗, 구렁이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도 왕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구렁이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땅거미가 깔리자 어린 손자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자는 악을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울음 똑 그쳐라. 안 그러면 저 구렁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손자는 울음을 똑 그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건 구렁이가 아니고 용이야, 용.”

그 순간, 구렁이는 몸을 뒤척였고 용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용은 하늘로 치솟아 형제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쳤는데, 형제산이 두 동강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형산강 물이 그 틈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형산강은 갈라진 두 산 사이를 지나, 경주에서 포



항으로 흘러 바다로 빠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용이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치자, 산이 갈라지면서 흙덩이가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땅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장기곶이 되었다나요.

또한 음력 아흐렛날, 즉 9일날 용이 꼬리로 산을 힘껏 내리쳐 날아간 흙덩이로 만들어진 땅이라고 해서 '구룡포'라 부른다는군요. 🌊

